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말은 마음의 초상이라는데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아름다운 말은 향기를 피워내지만 험담 등 악언은 독소를 쏟아낸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독소 중의 독소다. 칼 중의 칼이다. 지저분하고 천박하다. 어쩌면 그렇게도 독한 말을 서슴없이 토해낼 수 있는가.

“말하는 이쯤인가 왜 정규직화 돼야 하는 거냐” “비진X들이야” 등의 폭언은 소름끼친다. 그러면서 간호조부사가 어쩔고, 요양보호사가 어쩔고 등의 다른 직종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모욕을 줬다. 한마디로 천민인식의 발로다.

그런데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오히려 보도한 기사를 비난했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사적

인 통화가 아니라 취재를 위해 국회의원과의 공적인 통화를 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언주 의원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 그런데 사적, 공적 대화 등의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언주 의원이 갖고 있는 마음이 문제다. 이처럼 토설해낸 쓰레기들은 평소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상처 입은 대상자들은 얼마나 원통하겠는가. 모로코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말이 없다. 일파한 처세술 때문인가.

박지원 전 대표도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추미에 대표와 욕신각신하면서 각종 말들을 쏟아냈다. 며칠 전, 모 중편방송에 출연해서는 “산들바람이

불어도 봄날은 간다.”고 했다. 즉, 아무리 문제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언젠가는 하락할 날이 있다는 뜻이다.

과거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들먹이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인 대통령은 과거의 그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 꼭 그 법칙에 맞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낮은 곳으로 임하면서 철벽같은 벽들을 허물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힘 있는 자들은 조폭으로 동색이었던가.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였겠는가. 그런데 그런 경기장에 문 대통령이 들어와서 뒤바꾸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진 자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다. 물론 가진 자들은 교묘한 술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성동혁서 식으로 저항할 것이다.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은 저항세력들의 흉악한 간계이다.

앞서 박지원 전 대표가 한 말을 다시 한 번 봐보자. 산들바람이 불어도 봄날은 간다는 말. 이는 박 전 대표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정황상 여러 가지로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주변을 정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석양의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떠나가면서도 맹렬했던 한 낮의 기상을 잃지 않고 서쪽하늘을 붉게 물들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가 모습을 아쉬워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되씌어 볼 일이다.

각설하고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말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어떠한 궤변으로도 무마될 수 없는 몇 푼 가진 자의 천박한 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지역민들 덕에 중앙에서 벼슬한 사람들 등 가진 자들 스스로를 잘 여며보길 바란다. 항상 말을 조심하면서, 폴란드 문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레이’는 이런 말을 했다. “말은 마음의 초상”이라고. 그대들의 초상은 어떤가.

社說

마약 청정국 지위 지켜야

상반기 마약류 413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마약 적발 액수는 물론 건수와 종량 모두 증가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총 197건, 27.5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건수로는 48%, 종량은 160%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마약을 금액으로 따지면 413억원으로 적발 금액 역시 2배 늘었다. 경로별로 보면 국제 우편으로 반입된 마약이 131건(66%)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자 36건(18%), 특송화물 2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 직구, 해외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우편이나 여행자가 밀반입하는 마약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4.4kg(52%), 대마류 4.1kg(15%)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압수는 지난해 52건 7.1kg에서 올해 57건,

14.4kg으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냈다.

메트암페타민을 들여오는 국가도 이전엔 주로 중국이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대만,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MDMA(엑스터시), LSD(허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환각제) 등 파티용 마약 압수량도 많이 늘어나는 점도 특징이다.

MDMA 압수량은 지난해 6건(143정)에서 올 상반기 31건(1천 973정), 작년 상반기 1건도 적발되지 않은 LSD는 올 상반기 13건, 1천500개가 적발됐다.

아울러 대마초와 대마 관련 제품(대마 종자, 대마 오일) 압수량도 55건 2.1kg에서 58건 4.1kg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주요 공항만 세관에 조사·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여행자가 화물 등 분별별 선별·검색 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국내 유관기관 국제기구, 외국세관 당국과 공동도 필수조건이다.

기고

염웅열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소방장



즐거운 여름휴가, 물놀이는 안전하게

무더운 여름! 뜨거운 태양과 높은 불쾌지수...생각만 해도 벌써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등줄기로 땀이 흐르는 것 같다. 7월과 8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계곡과 바다로 물놀이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물놀이 안전에 대해 소홀해지는 순간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물놀이 사고로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사망했고,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고는 수영 미숙, 음주 후 물놀이 등 안전수칙을 무시한 안전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고 생명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수난 사고는 대부분 어른들의 부주의 및 소홀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아

이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물놀이 시작 전 준비운동은 필수

갑자기 차가운 물에 임수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근육경련이나 심장마비 등이 올 수 있다. 따라서, 5~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한 준비운동은 부상을 방지하고 물놀이에 적응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줘야한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가야 하는데,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나 팔에서부터 얼굴 가슴 순으로 물을 적시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물놀이를 하기에 좋은 온도는 25~26℃ 정도이다.

2. 자신의 수영실력, 너무 믿지 말자

바다나 계곡에서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하게 믿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구명조끼가 준비되어 있다면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구명조끼가 없다면 허리 이상의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3. 틈틈이 휴식하기

더운 여름, 시원하다고 오랜 시간 물속에 있다 보면 몸에 한기가 돌기 시작해 입술이 파래질 수 있다. 게다가 워터파크나 바다가 등은 흐르는 물(유수)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체력 소모도 많게 된다. 체력과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놀이 50분을 했다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4. 수영 전 과식은 금물

성인들은 음주를 하면 술로 인

해 울랐던 체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 전에 음주를 하면 위험하다. 과식도 마찬가지로. 수영을 하기 전, 배가 부를 정도로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 장애는 물론 심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다. 또한 차가운 음식인 과일이나 음료, 빙과류 등은 복통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따뜻한 음식 소량을 적당히 자주 먹어야 하며, 식후 30분 이후에 물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5. 해수욕장 안전선 준수

해수욕장은 파도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곳을 설정해 두고 그 안에서 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선의 역할이다. 안전선 밖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선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몇 가지 안전 수칙과 간단한 지식 몇 가지만 알아도 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히어로(Hero)’가 될 수 있다!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니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씩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올해는 물놀이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이 되길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Table with 2 columns: 宮殿盤鬱, 궁전은 울창한 나무 사이에 서린 듯 위치함.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Tel: (02) 2238-0003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ihonam@naver.com

Large advertisement for labor rights: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